

# 안전한 여름나기 책임진다

## 도, 9월 8일까지 100일간 특별대책 설정 폭염·호우·산사태 등 여름철 사고 관리

전북도는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도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중간점검을 위한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18일 전북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이현웅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여름철 안전관리분야 담당 과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15개 분야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여름철 100일간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도 및 시군 재난안전 담당부서가 함께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특히, 폭염, 풍수해, 도시침수, 가뭄, 산사태 등 5개 자연재난분야와 야영장·유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교통사고, 수상레저, 물놀이, 해수욕장, 전기·가스시설, 저수지, 식중독, 감염병 등 여름철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한 10개 분야 총 15개 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

전북도는 여름철 폭염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 4,850개소 운영 및 자율방재단과 함께 냉방기 등을 정비하였고, 상습 침수피해 예방책으로 금년 10개 시군의 24개 지구를 대상으로 우수저류시설, 하천·하수도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집중호우시 사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피해발생 즉시 부안 등 피해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지원을 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왔다.

매년 여름철 발생이 빈번한 모기 매개감염병,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방역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휴가철 이용이 빈번한 물놀이, 해수욕장, 수상레저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 도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이 우리도민의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과 민간전문가·유관기관이 꼼꼼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올 여름 100일간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돕는다

양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왼쪽)과 김승수 전주시장(오른쪽)이 18일 전주시 소속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노인 사회활동 기회 확대는 최고의 복지”

## 김일재 도 행정부지사, 김 부각 사업장서 일자리 활성화 방안 의견 청취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사진)는 18일, 노인일자리 현장인 남원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인 남원시 주천면 노인일자리 '김부각 사업장(남원부각)'을 방문하여 여름철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노인일자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정부 추경으로 노인일자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간

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니어클럽(관장 김현성)은 20개 사업에 490명의 노인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김부각 사업장'의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 25명이 근로하며 운영성과 우수사업단으로 평가돼 올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HACCP 인증 생산설비 및 노인친화적인 작업장을 올해 안에 구축해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은 2011년 시작돼 만 60세이상 다수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에는 2012년 전주 한옥마을 전년

누리봄(2012년 선정,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을 시작으로 올해 선정된 3개소(▲남원 시니어클럽의 HACCP 부각 제조 및 판매사업 ▲(주)코리아하이테크의 '실내청소 등 용역사업 ▲(주)코리아팻푸드'의 '애완동물 수제 간식 제조 판매사업') 포함, 총10개 업체가 선정 운영되고 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기회의 확대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한 민간영역에서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28일까지 슬로시티 전주학교 '오손도손' 희망자 모집

전주시는 '전주 슬로정신' 확산을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각 동으로 찾아가는 '슬로시티 숲학교-오손도손'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슬로시티 전주학교 '오손도손'은 지역주민 30~40명이 동네 모정이나 마을회관에 둘러앉아 전주문화원에서 들려주는 마을이야기와 흥겨운 우리가락 체험, 전주 슬로푸드로 만들어진 도시

락을 나눠먹는 오손도손 정감 있는 마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마을로 찾아가 전주 슬로시티만의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전주푸드로 만드는 '오손도손 마을밥상'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숲학교'로 첫 발을 댄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8일까지 각 동의 주민센터에 개인 또는 단체로 접수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손도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특색 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3개월 후에 도착하는 '슬로우체통'도 결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전국 기초의회협 사무총장에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선임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사진)이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김 의장은 1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04차 시도대표회의의 진행을 맡으며 협의회 사무총장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게 된 김명지 의장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힘을 보태고 기초의회 위상정립과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며 "특히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사무총장 선임으로 전주 시에서는 과장(5급)급 공무원 1명을 서울협의회에 파견, 전주시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의 대표인 의장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 15개 시도 대표의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월례회의를 열어 지역현안 등 공동 관심사를 협의·조정해 나가고 있다. /안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행정정보, 위키백과에 반영 협약 체결

앞으로 위키백과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보 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위키미디어협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식공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부에 따르면 위키백과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웹사이트 목록 5위를 기록한 지식·정보 공유의 대표적 매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행정정보는 없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정부와 한국위키미디어협회

는 행정정보를 위키백과 등에 충실하게 수록하여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력기로 했다.

정부,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위키백과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사용허락(Creative Commons License)의 적용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행정기관이 위키백과에 행정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관련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며, 행정기관의 에디터톤 개최를 공동으로 지원기로 했다. /뉴스시스

# 도의회 문건위, 민간위탁기관 '빈틈없는 업무' 당부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8일 제345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문건위원들은 추진상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개선하는 등 빈틈없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양성빈 의원(장수)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과연 문화관광재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내실 있는 사업발굴과 추진을 주문했다.

장광수 의원(정읍)은 "문화관광재단이지만 관광과 관련된 성과나 사업이 전무하다"고 꼬집으며, 문화예술만을 통한 관광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완 의원(원주)은 "시군 대표축제 및 유관행사 시 공연지원과 관련하여 장소선정에 좀 더 고민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문화관광재단 출범계획을 되돌아보고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재단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최진호 의원(전주)은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주제가 매년 비슷하고 추상적이어서 프로그램조차 그려지 않나 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명확한 테마를 가지고 전년도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